

‘캘리포니아 집값 폭등 현상 미 전역으로 확산



▲ 텍사스 휴스턴의 한 주택 앞에 서있는 매물표지판.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주택 시장에서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IT(정보기술) 업계 종사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상황이 텍사스 등 주변 지역에 이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델라스 연방준비은행(연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텍사스 샌안토니오 주택 중 3분의 2가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였지만, 지난해 말에 이 비율은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델라스 연은은 중위소득 가구가 소득의 28%를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중산층이 구입 가능한 가격대'로 규정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지난해 초 텍사스의 집값은 전년 대비 20%나 급등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텍사스로 이주하는 다른 주 거주자들이 급증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텍사스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900만명이 넘는다.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매물이 급감하는 현상은 미 전역에서 확인된다. 노스캐롤라이나 램리의 경우 2014년에는 주택 73%가 구입 가능한 가격대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40%로 떨어졌다. 플로리다주의 포트마이애스 도심지역은 69%에서 26%로 감소했다.

인력난에 시스템 오류까지 ... 항공 교통 구멍

미국항공교통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공항 내 관제사의 인력이 부족한 데다 비행기 추적 시스템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에서 시스템 오류로 지연된 항공편 운항을 기다리는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보잉767 화물 수송용 항공기가 텍사스주 오스틴 버거스트롬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려던 중 갑작스런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여객기와 충돌할 뻔했다. 관제탑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여객기에 이륙 출발 신호를 잘못 내줬기 때문이다.

항공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은 지난 1월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도 발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항공 교통량은 50% 급증한 데 비해 관제사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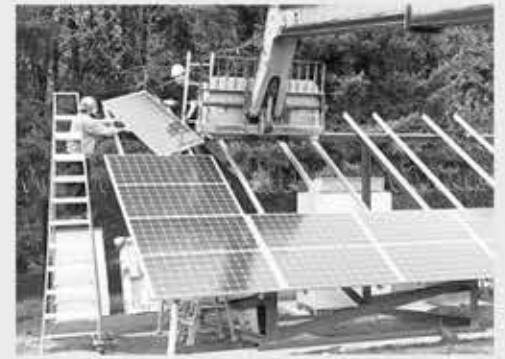
전직 관제사인 저스틴 페어클로스는 "많은 관제사가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토론했다.

지상 비행기 추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뉴멕시코주에서는 관제사들이 비행기 조종사와 교신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제사들은 "일부 공항에는 지상 레이더가 부족하다"며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료 웹사이트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비행기를 추적한다"고 털어놨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변 태양광 시설 건립 허용



▲ 오리건주의 고속도로변 유휴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패널 설치 모습. 사진 oregon.gov

캘리포니아주가 고속도로 주변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 상원에서 제출한 '재생에너지-교통부 평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주변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명확한 지침을 확립하게 한 것이 골자다.

교통부는 캘리포니아 내 에너지 기관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지로 고속도로변의 빈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평가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부지 인치를 원하는 기관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조시 베커 주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미개발 자원인 고속도로변 토지를 활용해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청정에너지를 도시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부 캘리포니아 3개 카운티의 고속도로변 부지만 활용해도 연간 2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매체 CNBC는 2008년 처음으로 고속도로변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한 오리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태양광 발전 확대 대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현재 오리건주의 고속도로변에는 총 594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